

부정행위 의심 사례 어떡하나

김서희 기자 smile965@khu.ac.kr

지난 12월 21일 진행된 영어영문학과 전공필수 과목 <비평 입문> 기말고사 시험에서 부정행위 의심 제보가 잇따랐으나 부정행위자를 찾지 못했다.

12월 22일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휴대전화로 시험 내용을 검색하는 행위 ▲시험 도중 감독관 동행 없이 강의실을 이탈하는 행위 등을 목격했다는 댓글이 달렸다.

해당 시험의 부정행위를 직접 목격한 영어영문학과 A씨는 “시험 중간, 누군가가 필통으로 핸드폰을 가리며 무언가를 검색하는 모습을 봤다”며 “이는 직후 실시한 사례조사의 구글 폼을 작성해 신고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12월 23일 2022학년도 영어영문학과 학생회는 학과 사무실과 논의해 사례조사를 실시했다. <비평 입문>을 담당한 유정완(영어영문학) 교수는 입장문을 통해 학생들에게 조사 결과를 전했다. 유 교수는 “조사 자료에서 부정행위가 의심 가는 학생 신상을 특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자를 잡아내지 못했다”며 “기말시험 답안 채점 시 특별히 이상한 답안지에 유의했으며, 앞으로는 더욱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에서 기말 시험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 (사진=서세종 기자)

조심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수업 시간에 하지 않았던 말이나 용어나 해설을 쓴 답안, 보편적·설명적·서술로 시작 또는 일관하는 답안 등에 주목하며 채점했다”면서도 “제가 직접 시험을 감독하지 못한 점, 좁은 강의실에 감독 조교를 여러 명 배치하지 못한 점, 그리고 부정행위 우려에 대해 사전 고지 못한 점 모두 제 불찰이다”고 사과의 말을 덧붙였다.

이번 사건으로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발생해도 부정행위자를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우리학교에는 대면 시험시 학생 간 빈 좌석 배치 및 감독관 수·행동 지침에 대해 정해진 의무 규정이 없다. 당시 시험장 역시 인

원에 비해 협소한 공간으로 좌석 사이에 공간을 비워 앉을 수 없었으며, 시험 감독은 조교 한 명이 진행했다. A씨는 “부정행위 증거 조사에 있어서 즉각적인 조치가 없어 아쉬웠다”며 “앞으로는 교수님과 조교님이 모두 감독해줬으면 한다”고 철저한 시험 감독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1년 동안 학사지원팀과 학생지원과로 접수된 부정행위 신고·처벌사례는 없다. 만일 시험 부정행위가 적발될 시 또는 사후 부정 행위자로 판명될 시 경희대학교 학칙 ▲제70조(징계) 및 학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35조(성적의 무효)에 따라 해당 과목 성적 무효 처리 및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해당 대학(학부)장의 책임하에 조속한 진상조사와 자체 교수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받을 수 있다.

오는 3월 1일부터는 현장에서 부정행위 적발 시 즉각적으로 0점 처리 효력이 발생하는 ‘부정행위 사실확인서’가 학사 운영 규정에 새로이 반영된다. 이는 실질적인 징계 절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기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다만 학사지원팀은 “시험시간 이후 부정행위 제보를 받는 것은 부정행위를 공모한 것과 같은 명확한 증빙이 있지 않는 한 처분이 불가능하다”며 “제보만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험 요소가 있기에 해당 내용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2면에서 이어짐

‘동아기획의 음악적 실천과 가요사적 의미’라는 논문으로 예체능 계열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이소진(응용예술학 2018) 씨는 “박사 졸업과 함께 최우수논문상이라는 값진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연구의 장을 펼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홍성규 교수님과 응용예술학과 교수님, 논문이 나올 수 있도록 도움과 응원을 아끼지 않았던 가족, 동료분들과 수상의 기쁨을 함께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재학생들에게 “감춰져 있는 소중한 재능들을 발견하고 단련해서 빛을 내며 앞으로 나아 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의학 계열에서 ‘특발성 저신장 소아 환자에 대한 한의 치료의 비교 효과 및 비용-효과’를 분석한 연구로 입상한 이보람(임상한의학 2019) 씨는 “현재 임상 현장에서 특발성 저신장에 대해 다양한 한의 치료 기술의 조합이 사용되고 있으나, 그 치료들 간 혹은 기존 치료 대비 한의 치료의 비교 효과와 비용-효과에 대한 연구는 수행된 바 없다”며 “임상 현장에 실용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논문을 작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주제 선정에서 어려웠지만 연구책임자로 직접 수주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결과 중 일부를 정리한 것으로 제게 매우 의미 깊다”며 “학위 취득만으로도 영광스러운데, 이렇게 과분한 상까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수상의 기쁨을 덧붙였다.

한편 일반대학원은 학위기를 본관 311호(서울캠퍼스)와 본관 405호(국제캠퍼스)에서 배부한다. 석사 학위 가운은 현금 105,000원에 대여할 수 있고, 박사 학위 가운은 대여하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2022년 하반기 인천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기간

2023. 2. 15.(수) 09:00 ~ 3. 14.(화) 18:00

지원대상

- ① 부모 또는 본인이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대학교(대학원 포함) 재·휴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 중
 - * 대학생(졸업 후 5년 이내), 대학원생(졸업 후 2년 이내)
- ② 한국장학재단 산정 소득 분위가 8분위 이하인 자
 -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학생은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지원내용

2019년 1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2년 하반기(7~12월) 발생이자 지원

신청방법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www.incheon.go.kr) 온라인신청



지원방법

한국장학재단 대출원리금에서 상환(개인계좌 입금 없음)

문의처

- 인천광역시 미추홀콜센터 ☎ 032-120
- 인천광역시 교육협력담당관 ☎ 032-440-2193
- * 자세한 내용과 주의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